

2020. 12. 28

(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

## ( 출처 ) 파이낸셜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014&aid=0004554226>

### ( 요약 ) “다시 서울로”...12·17 규제 후 강남쪽 ‘마용성’도 신고가

- 비규제지역이던 수도권과 지방등이 추가 조정대상지역에 대거 지정돼 매수세가 서울 주요지역으로 유턴
- 강남은 재건축 사업지역을 위주로 오르는데 반해, 이달 들어 마용성이 바통을 이어 받은 상황



"경기도와 지방의 아파트값이 많이 오르면서 서울 핵심지역의 아파트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상황이 됐다. 연말들어 매수문의가 늘어나면서 매물을 거두는 사례들이 재현되고 있다." (마포구 A 공인 관계자)

그동안 비규제지역이던 수도권과 지방 전역이 12·17 규제 등으로 추가 조정대상지역에 대거 지정된 후 매수세가 서울 주요지역으로 급격히 유턴하고 있다. 특히, 강남권에서 먼저 시작된

재상승장은 12·17 추가 규제지역 발표 이후 '마용성'(마포·용산·성동)으로 본격적으로 번지고 있어 향후 서울 전역으로 확산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KB 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 KB 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주 서울의 매매가격은 0.38% 상승해 전주(0.36%)보다 상승폭을 키우며 최근 3주간 뜨거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매수우위지수 역시 기준점인 100을 넘는 112.3을 기록하며 조금씩 매수문의가 증가하는 분위기다.

이미 지난달 말부터 강남구는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은 압구정동을 비롯한 주요 정비지역을 중심으로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달 들어 '마용성'이 바통을 이어받고 있는 상황이다.

마포구에서 내년 3월 입주를 앞둔 염리동 마포프레스티지자이(84㎡) 분양권이 20억원에 거래되며

전용 84㎡ 20억원 시대를 연 것이 대표적이다. 신축뿐 아니라 구축에서도 신고가 행진은 이어지고 있다. 공덕동 삼성 1차(84㎡)는 14억 7000만원에 거래되며 직전거래 13억 3000만원보다 1억 4000만원이나 올랐다.

마포구 A 공인 관계자는 "임대차 2법 이후 전셋값이 너무 올라 매수로 돌아선 사례가 많은데, 최근 거래되는 것들은 대부분 이러한 실거주 수요"라면서 "문제는 실거주 가능한 매물이 많지 않다 보니 해당 매물들을 중심으로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성동구 아파트들도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금호동 래미안하이라이프(84㎡ B)는 이달 중순 14억 3500만원에 거래되며 같은 주택형의 직전 실거래가인 12억 7000만원보다 1억 6500만원이 상승했다. 하왕십리동 왕십리센트라스(84㎡ E)도 이달 16억 3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액에 팔렸다.

금호동 A 공인 관계자는 "지난달 압구정에서 시작한 상승세가 성동구까지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보통 강남에서 상승세가 시작되면 성동구는 그다음으로 바로 따라붙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미 몇주 전부터 매수문의는 많은 분위기"이라고 말했다.

용산구도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이촌동 한강맨션(102㎡)이 최근 26억 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최근 조합설립총회를 연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210㎡)도 이달초 32억 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찍었다.

용산구 A 공인 관계자는 "올해 다른지역이 많이 오르는 동안 서울 핵심지역의 상승세는 그보다 더뎠다"면서 "현재로서는 알짜매물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보이는 만큼 그동안 다른 지역들의 '키맛추기'로 좁혀진 갭이 다시 벌어지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0. 12. 28	(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
<b>( 출처 ) 이투뉴스</b> 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063	
<b>( 요약 ) 5차 신재생기본계획 2034년 설비용량 85GW</b> - 누적보급량인 5.6GW에 64.4GW를 추가 보급하고 신에너지를 포함한 발전량비중도 25.8%까지 높인다는 계획 - 이번 5차 신기본은 RE100, 자가용 재생에너지 확대 등 수요, 자발적 확산을 보완한다는 의미	
<p>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용량이 84.4GW까지 확대된다. 작년까지의 <b>누적보급량인 5.6GW에 64.4GW를 추가 보급하고 신에너지를 포함한 발전량비중도 25.8%까지 높인다는 계획</b>이다. 온실가스는 2034년까지 6900만톤 감축해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그린뉴딜 목표와 정합성을 확보하기로 했다.</p> <p>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는 28일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5차 신기본을 통해 기존에 부족했던 계통수요수소분야를 대폭 보완할 방침이다. 우선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변동성에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신기본이 양적확대에 초점을 맞춰 계통의 안정성에 부족했지만 이번 계획에선 그 분야를 보강한다는 것이다.</p> <p><b>기존 계획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발전차액지원제도(FT) 등 공급의무화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5차 신기본은 RE100, 자가용 재생에너지 확대 등 수요·자발적 확산을 보완한다는 의미</b>도 있다. 신에너지인 수소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육성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p> <p>특히 이번 5차 신기본에는 처음으로 탄소중립 도전과제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수용성을 갖춘 입지 및 유망에너지원을 발굴하고 공공커뮤니티 주도 개발방식을 확산하기로 했다.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신재생 공급·전달·거래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고, 핵심소재 재활용 및 재제조를 통해 공급망도 안정화할 방침이다.</p> <p>또한 재생에너지설비의 계통안정 유지 의무화와 배전망 중심 직류·교류 하이브리드 계통에 투자해 전력계통 대전환의 밑거름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그린수소를 의무화로 발전수송산업 활용을 촉진하고, 잉여에너지 변환과 의무화제도 통합 및 공급·수요자원 통합관리 등 시장제도간 연계도 강화한다.</p> <p>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수립한 탄소중립 도전과제를 향후 탄소중립 전략수립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2034년까지 최종에너지 중 12.4%를 재생에너지로, 13%는 신에너지로 확충할 계획이다. 2034년 목표 발전비중도 재생에너지 22.2%(80.8GW), 신에너지 3.6%(3.6GW)로 설정했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보다 172%p(61.9GW), 신에너지 실적보다 3%p(2.8GW) 늘렸다.</p> <p>특히 2034년 재생에너지 목표 발전량 중 77.8GW는 사업용, 3GW는 자가용발전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재에너지 분산형발전 확대도 모색한다. 온실가스는 2034년까지 6900만톤CO<sub>2</sub>를 감축할 계획이다.</p>	

이밖에도 정부는 5차 신기본을 통해 RPS시장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에너지를 분리해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비전력, 분산에너지로 저변을 확대해 산업 다양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다양한 수요기반을 창출하기 위해 RE100을 중심으로 한 소비측 재생에너지 사용기반도 강화하며, 자가용설바·잉여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신규수요 확보전략을 병행해 재생에너지의 다양한 수요기반을 창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송배전망 접속제도 개선을 통해 계통수용성을 증대하고, 안정적 계통운동을 위한 재생에너지 운영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2020. 12.29

(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그 외 )

( 출처 ) 머니투데이

[기사링크](#)

### ( 요약 ) 20년간 나을 방폐물 처분시설 짓는다

- 정부, 2026년까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28만5000드럼 처리할 수 있는 처분시설 증설 계획
- 향후 20년간 처분이 가능한 규모로 처분시설 증설 등에 향후 5년간 약 5000억원 투입



**정부가 2026년까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28만 5000드럼을 처리할 수 있는 처분시설을 증설한다.** 2040년까지 방폐물 39만드럼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기존시설(10만드럼) 저장량을 고려하면 **향후 20년간 처분이 가능한 규모**다. 처분시설 증설 등에 향후 **5년간 약 5000억원이 투입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은 3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2단계 방폐물 처분시설을 증설한다. 표준형 처리시설로 저준위 이하 방폐물 12만5000드럼이 저장 가능하다. 2026년까지는 16만드럼이 처분가능한 3단계 시설을 매립형으로 짓는다. 처분시설 추가증설 시기와 방식은 5년 뒤인 3차 기본계획 수립시 결정할 계획이다.

중저준위 방폐물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만5991드럼이 추가 발생했다. 2019년말 기준 누적 중저준위 방폐물은 14만5213드럼이다. 정부는 2030년 누적으로 약 22만드럼 규모 중저준위 방폐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도 방폐물 인수검사시설을 2024년까지 확충하고 방폐물 분석센터 등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방폐물 처분시설 증설과 방폐물 인수검사처분 역량 강화, 관리시스템 정립 등에 방폐물 관리기금이 활용, 향후 5년간 4853억2700만원을 투자한다. 2025년까지 방폐물 처분시설 건설에 2185억7000만원, 처분시설 운영에 1850억5900만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방사선 안전관리와 수용성을 높이는 사업에는 각각 505억9800만원, 127억4700만원이 투자된다.

중저준위 기술개발에는 2022년까지 184억5300만원이 투자된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기술개발 예산은 차기 중기 재정 운용계획과 R&D(연구개발)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확정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방폐물 특성별준위별 세부 인수 기준을 마련하고 방폐물 인증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운반용기 개발에 나선다. 또 정부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상시비상시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민 안전점검단을 운영한다. 방폐물 처리장 인근 방사선량, 실시간 방폐물 운반상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하고 방폐장 유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0. 12.29

(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그 외 )

( 출처 ) 서울경제

[기사링크](#)

### ( 요약 ) '치명률 낮지만 전염력 1.7배'...국내에도 영국발 바이러스 주의보

-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일반 바이러스보다 감염력 높지만 치명률은 낮다는 전문가 견해... 하지만 대규모 유행 우려
- 변이라 하더라도 기존 바이러스와 단백질 구조 같아 백신 효과 있을 것으로 판단... 효과의 정도는 미지수



영국에서 유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유입된 것으로 28일 확인되면서 이 바이러스의 실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직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모든 사실이 규명되지 않았으나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 속도가 빠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영국에서 확산하기 시작해 국내에도 유입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 9월 영국 잉글랜드 남동부에서 처음 출현했다. 이후 영국 정부가 지난 14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에 유전자 분석을 통해 확인한 변이 바이러스를 보고하면서 전 세계에 알려졌다. 당시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환자의 급격한 증가세가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단 '변종'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유전자 분석 결과 아예 종이 다른 바이러스가 아니라 기존에 유행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분화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D614G' 등 중국 우한에서 확산한 초기 바이러스와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전 세계에 퍼진 바 있다.**

영국에서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현재 확산하는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 대비 전파력이 40~70% 크고, 확진자 1명이 몇 명에게 병을 전파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지수를 최대 0.4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염 재생산지수는 1을 초과하면 '유행 지속', 1 미만이면 '발생 감소'를 의미하므로 0.4 높아질 경우 확산 속도가 크게 빨라질 수 있다.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치명률이 높다는 보고는 나오지 않았다. 바이러스는 일 반적으로 변이할수록 전파 속도나 감염력은 높아지지만 치명률은 낮아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기존에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을 무력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이 역시 근거가 없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더라도 기존 바이러스와 단백질 구조 자체는 같아 백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얼마만큼 효과를 내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변이 바이러스의 치명률이 높지 않지만 감염력이 강하고 전파 속도가 빠른 점은 또 다른 대규모 유행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국내 3차 대유행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확진자가 폭증할 경우 의료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2020. 12. 30	(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
<b>( 출처 ) 연합뉴스</b>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109003?sid=101">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109003?sid=101</a>	
<b>( 요약 ) 한전, 3년 만에 전기 팔아 남는 장사...원가 회수율 100% 넘어</b> - 한전이 공시한 '2020년 전기요금 원가 정보'에 따르면 올해 전기요금 총괄원가회수율은 100.5%를 기록 - 올해 원가 회수율이 100%를 넘은 것은 코로나로 인해 저유가 기조로 원가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연료비 줄어	
<p>올해 한국전력이 3년 만에 전기를 팔아 남는 장사를 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p> <p>30일 <u>한전이 홈페이지에 공시한 '2020년 전기요금 원가 정보'에 따르면 올해 전기요금 총괄원가 회수율(총수입/총괄 원가)은 100.5%를 기록했다.</u></p> <p>총괄원가 회수율은 한전이 한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기공급에 들어간 비용을 전력 판매 수입으로 얼마만큼 회수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회수율이 100%를 넘으면 한전이 남는 장사를 한 것이고, 반대면 밀렸다는 것이다.</p> <p>한전의 원가 회수율은 2014~2017년 100%를 넘었다가 2018년 이후로는 100%를 밑돌았다. 2018년 원가 회수율은 94.1%, 지난해는 93.1%를 기록했다.</p> <p><u>올해 원가 회수율이 100%를 다시 넘은 것은 코로나 19로 인한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원가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구입전력비와 연료비를 아낀 덕분</u>이다.</p> <p>실제로 올해 이 비용은 46조 1천 309억원(잠정)으로, 작년(51조 6천 298억원)보다 약 5조 5천억원 줄었다.</p> <p>한전은 내년부터 유가에 따른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주기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한다.</p> <p>한전 관계자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으로 최근 유가 하락 추세를 반영하게 돼 일정 기간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주요한 원가변동 요인인 연료비와 전기요금간의 연계성이 강화돼 요금조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p>	

2020. 12. 30	(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
<b>( 출처 ) 뉴스원</b>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077455?sid=101">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077455?sid=101</a>	
<b>( 요약 ) '이제는 대세' 해상풍력, 韓 중후장대 기회 잡나</b> - 세계적인 탈탄소 정책 확대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가 각광을 받는 가운데 해상풍력 확대소식이 줄줄이 나와 - 정부도 2030년에는 전 세계 해상풍력 5대 강국을 목표로 해상풍력을 12GW까지 늘릴 계획	
<p><u>세계적인 탈탄소 정책 확대에 힘입어 태양광, 풍력, 수소와 같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상풍력 확대 소식이 한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나왔다. 이에 한국 중후장대 산업도 관련 수주가 기대된다.</u></p>  <p>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본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력부문에서 해상풍력을 기존 계획보다 더 증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상풍력에서 2030년 10GW(기가와트)설치 계획을 확대해 2040년 최대 45GW까지 설치 목표를 높였다. 현재 일본 해상풍력 설치량은 60MW(메가와트)정도다.</p> <p>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발표된 해상풍력 목표 중 일본이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미국에서도 북동부 주에서 해상풍력 목표가 2035년까지 약28GW, 영국은 2030년까지 40GW, 대만은 2035년까지 15GW까지 계획이 잡혀 있다"고 설명했다.</p> <p>이처럼 해상풍력 확대 정책이 세계 각국에서 추진됨에 따라 한국 중후장대 산업에서도 관련 수주가 기대된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p> <p>한 연구원은 "일본은 히타치와 미쓰비시가 기존 해상풍력 터빈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관련 공급망(밸류체인)이 형성조차 안 돼 있다"며 "45GW기준 일본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시장은 약 23조원~28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연간 1조원 수준으로 하부구조물 시장에서 삼강엠앤티가 30%만 확보해도 연간 3000억원 이상의 매출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p> <p>세계 풍력타워 제조 1위 업체인 씨에스윈드가 최근 미국 북동부 해안에 해상풍력 타워공장을 신설하고, 중부지역에는 육상풍력 타워공장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p> <p>조선업에서도 해상풍력은 새로운 수익원이다. 해상풍력 설치선(WTM)의 수요도 함께 늘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WTM의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p>	



철강업에서도 해상풍력 구조물 소재를 공급할 수 있어 관련 수주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제강지주는 현재 해상풍력발전기 하부구조물과 타워 제작에 필요한 특수 철강 소재를 제작해 공급 중이다.

이밖에 SK E&S는 전남 신안에 국내 단일 규모 최대 해상풍력단지(96MW)를 추진 중이고, 추가로 800MW의 대규모 해상풍력도 검토 중이다. 종합 민간 발전사인 SK D&D도 전남, 제주 등지에서 700MW규모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대중공업도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동해안에서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하고 있다. 두산중공업도 2025년까지 해상풍력에서 매출 1조원을 목표로 터빈 등을 제작하고 있다.

한편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GWEC)에 따르면 세계 해상풍력 발전용량은 2019년 29.1GW에서 2030년 234GW까지 약 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을 목표로 현재 3개 단지 124MW규모의 해상풍력을 12GW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20. 12.31

(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그 외 )

( 출처 ) 매일경제

[기사링크](#)

( 요약 ) 올해 소비자물가 0.5% 상승...50년만에 2년 연속 '0%대'

-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국제유가 하락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식 및 서비스 가격 상승 폭 제한됨
- 민간 서비스 가격 0.3% ↑, 공공서비스 가격 1.9% ↓, 농축수산물 가격 6.7% ↑, 전기수도가스비 1.4% ↓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여파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작년에 이어 0%대에 머물렀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년 연속으로 0%대를 기록한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65년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을 살펴보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05.42(2015년=100)'다. 이는 전년대비 0.5% 상승한 수치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심의관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내리면서 석유류 가격이 하락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외식이나 여가 등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 폭이 제한됐다"고 설명을 더했다.

이를 품목 성질별로 살펴보면, 올해 서비스 가격은 1년 전보다 0.3% 소폭 상승했다. 반면 공공서비스는 코로나19 관련 정책 지원과 교육 분야 공공지원의 영향으로 1.9% 하락했다.

상품 가격은 농축수산물 가격이 6.7% 상승하면서 1년 전보다 0.9% 증가했다. 공업제품은 0.2%, 전기수도가스 등은 1.4% 각각 내렸다.

한편 물가상승률이 연간 기준으로 0%대를 기록한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0.8%)를 포함해 올해까지 총 4차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 12.31

(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그 외 )

( 출처 ) 한국경제

[기사링크](#)

### ( 요약 ) 미국 코로나 사망·입원 또 역대 '최대'..."현재 쓰나미 단계"

- 미국 코로나19 사망자 수 하루 3725명, 입원환자 125만명... 사상 최고치
- 보건 전문가들 내년 1월~2월에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망자와 입원 환자 수가 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확산 여파가 진행중이다.

CNN 방송 등은 미 존스홉킨스대학이 29일(현지시간)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3725명으로 집계했다고 30일 보도했다. 종전 최대치인 지난 16일(3682명) 집계치를 넘어선 것이다.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는 12만4686명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사태 이후 최고치다.

주별로는 텍사스주에서 입원 환자가 1만1700명을 넘어섰고,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카운티에서도 입원 환자가 7200명에 근접하는 등 새 기록을 썼다.

전염병 학자인 로버트 킴-팔리 박사는 "우리는 이제 급등의 파도(단계)를 넘어섰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바이러스의 쓰나미(지진해일)"라고 말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주말을 거치며 15만~16만명대로 다소 줄었지만 29일(20만1555명) 다시 20만명대를 넘어섰다.

**보건 전문가들은 내년 1월께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말 연휴 기간 여행객이 늘고, 가족친지와의 모임이 늘어난 여파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조지워싱턴대학 의학 교수 조너선 라이너 박사는 "앞으로 2~3개월은 끔찍할 것"이라며 "아마도 2월에 꽤 접어들 때까지 하루에 3000명, 어쩌면 그 이상이 숨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존스홉킨스대에 따르면 이날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953만여명, 누적 사망자 수는 33만8000여명이다.